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Ego-Identity and Perceptions of Parenting Behaviors

민하영(Ha-Yeoung Min)¹⁾

권기남(Ki-Nam Kawn)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parent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low-income children have indirect effects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rough ego-identity. The subjects were 148 6th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family income was less than 2,000,000 won, Statistical techniques were Pearson's Correlation and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were that (1)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chool adjustment in low-income children. (2)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ego-identity of low-income children. (3) When the effect of perceived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s was controlled, the effect of ego-identity of low-income children was significant. However, when the effect of ego-identity of low-income children was controlled, the effect of perceived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s became non-significant.

Key Words : 저소득층 아동(low-income children), 지각된 양육행동(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학교 적응(school adjustment), 자아정체감(ego-identity).

I. 서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아동 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이러한 아동복지의 목적 실현은 아동이 처한 불우한 환경에 따라 방해받거나 난관에 부딪치기 쉽다. 특히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한 가정환경은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삶의 조건과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¹⁾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a-Yeoung Min, Departmen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0 Kumlak-1ri, Hayang-up, Kyeongsan-si, Gyeongbuk 706-763, Korea
E-mail : mhyed@hanmail.net

(Coulton, Korbin, Su, & Chow, 1995), 아동의 복지를 심각히 위협하는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아동은 전통적으로 아동복지의 주요 실천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는지 모른다.

저소득층 빈곤 아동의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이나 학업 지원 활동은 주요 사업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동적 힘이 교육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교육적 열의 및 학업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김영희, 2001; 박미령, 1992). 이는 부모보다 나은 직장과 계층 상승이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교육기회나 학업부진이 빈곤의 악순환을 연결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빈곤 가정의 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높여주거나 학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있어, 교육이나 학업 활동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학업 활동의 장(場)인 학교에서의 적응은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교 적응이란 학업에서 성취를 보이고 학교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사회정서적 행동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도를 의미한다(Berndt, 1999). 이러한 학교 적응은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 및 양육행동(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1; Vandell & Ramanan, 1991)과 같이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학교 적응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빈곤과 같은 물리적 조건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 낮은 경제적 소득으로 인한 긴장된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의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 등 심리적 과정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심리적 부담감을 더 심하게 느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 제공에 있어 뒤떨어지는 능력을 보인다(김영희, 1996; McLoyd, 1990; Vandell & Ramanan, 1991). 따라서 자녀의 학업 활동 및 학교 생활을 적절히 지도하거나 관리하는데 소홀하기 쉽다. 결국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문제는 McLoyd와 Wilson(1991)이 '가족 과정 모델(family process model)'을 중심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양육행동과 같은 심리적 과정과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은 기존의 연구(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1;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Vandell & Ramanan, 1991)에서처럼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록 빈곤한 가정의 가족과정에서 주요하게 평가되는 심리적 환경요인이라 해도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아동의 외적 환경 요소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가? 부모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높은 자아상 등 개인 내적 특성에서 탄력성(resilience)을 갖는 아동의 경우 위협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Garmezy, 1991; Rutter, 1979). 그렇지만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는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 심리적 환경 등 아동 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 했을 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 자신의 내적 특성과 함께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부진했다.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가 아동의 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있음(이소희, 김영희, 윤재정, 이용복, 최진원, 박응희, 1999)을 고려해 볼 때, 빈곤한 주변 환경의 개선만큼이나 아동 자신의 내적인 인성 특성을 토대로 자신의 보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은 아동의 주변 환경 뿐 아니라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인 인성 특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내적인 인성 특성 중 ‘자아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학교 적응과 유관성을 보일 뿐 아니라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 자신을 보호하는 탄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심희옥, 1997).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높은 학교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박은아, 1993; 현희순, 김양순, 1999)되고 있으며, 자기 유능감이 높은 빈곤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적응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1998). 이와 같이 학교 적응이 ‘자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보면, 자아에 대한 이해 중, 청소년기 대표적 발달과제로 간주되는 자아정체감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주요한 내적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Erikson(1968)에 의해 언급된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내적 탐색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이념 등에 있어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 즉 자기다움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노력을 의미한다. 즉, ‘나는 누구이며 장차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탐색적 물음에 대한 대답에 기초를 둔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에 대한 지각과 정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상(self image)이라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하려는 특성상,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앞으로 나아갈 전망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차 미래 적응의 주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은 ‘앞으로 나아갈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는 자아정체감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아동 외적인 환경적 변인 뿐 아니라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같은 내적인 인성적 변인을 함께 연결시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그리고 자아정체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의 매개적 역할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의해 매개될 경우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빈곤이라는 취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내적 보호 요인으로 역할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¹⁾을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 부모의 양육행동 통제시,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학교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효과는 아동의 자아정체감 통제시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생활을 지도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정부 및

사회단체 그리고 아동복지사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민 아파트 지역내 3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1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동복지의 경우 사후 치료적 대책보다 사전 예방적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시각(성영혜, 김연진, 1997)을 고려한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문제 및 학교적응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중학생보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 적응문제를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중학교 진학 이후 학교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월소득 200만원 이상을 중류층으로 구분(김대년, 최정신, 권오정, 2002; 소연경, 2000)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류층 미만의 소득계층을 저소득층이라 조작 정의하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정 안에서 양친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을 저소득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편부모 아동의 경우 경제적 빈곤 외에 결손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존감 저하 등 자아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김양호, 박정희, 유계숙, 전춘애, 2002)되고 있다. 이에 양친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으로 제한함으로써 연구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차적 요인들을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였다.

1) Baron과 Kenny(1986)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변인의 매개 효과가 검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독립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효과는 매개 변인이 통제될 때,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대상 아동은 남자 72명(48.6%), 여자 76명(51.4%)이었으며, 소득 100만원 미만이 44명(29.7%),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 58명(39.2%), 150~200만원 미만이 46명(31.1%)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30대 이하 22명(14.9%), 40대 116명(78.4%), 50대 이상 10명(6.7%)이었으며, 고졸 이하 102명(68.9%), 대졸 20명(13.5%), 무응답 26명(17.6%)이었다. 어머니는 30대 이하 41명(27.7%), 40대 101명(68.2%), 50대 이상 6명(4.1%), 고졸 이하 107명(72.3%), 대졸 7명(4.7%), 무응답 34명(23.0%)이었다.

2. 연구척도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박경란, 1997; 박아청, 1995; Adams & Fitch, 1982; Dignan, 1965)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3인의 아동발달 및 복지 관련 전공자에게 구성된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예비 조사를 통하여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는 목표 성취에 대한 의지, 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며 자기의 행동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자아상,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자신의 일반적 경향을 묻는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에서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긍정적 진술 문항의 경우 '그렇다'에 4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부정적 진술 문항의 경우 역산 처리하였다. 응답점수는 25점부터 1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정체감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의 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 NRI),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가 개발한 PQ (Parenting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내용 타당도는 3명의 아동발달 및 복지 관련 전공자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묻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부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의 경우 역산 처리하였다. 9점에서 45점 사이의 응답범위 중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임을 의미한다.

3) 학교 적응 척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선(1998)의 학교 적응 척도를 참고하여, 일부 용어를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박현선(1998)의 학교 적응 척도는 빈곤 환경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8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빈곤 환경 관련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전문가, 대학 전임강사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것이다. 학교 적응 척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가하

였다.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 적응을 의미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서울시 N구 및 경기도 P시 소재 영세민 아파트 지역의 3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27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용 질문지는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학급 담임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된 후 회수되었다. 한편 가정환경 관련 자료에 관한 질문지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작성하도록 지도한 후 3일의 기간을 두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소득이 200만원 이상의 자료와 부실기재된 자료 총 73부를 제외하여 154부가 분석 대상이 되었으나, 양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6부의 자료를 제외한 148부만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문제는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매개 변인에 관한 Baron과 Kenny(1986)의 전제 조건에 근거해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성별 효과의 통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1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간 학교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통제 없이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한편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평균은 60.04(SD=7.24), 자아정체감 평균은 74.04(SD=10.94), 부모의 양육행동 평균은 33.11(SD=5.77)로 나타났다.

<표 1> 성별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독립변인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평균(SD)	t값
남자 (72)	61.1(7.08)	1.62(n.s)
여자 (76)	59.1(7.31)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

<표 2>에서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학교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6, p<.01$). 독립(부모의 양육행동)과 종속변인(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표 3> 참조), 부모의 양육행동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 \beta=.26, p<.01$).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수록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간의 상관관계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n=128)
부모의 양육행동	.26**

** $p < .01$

<표 3>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n=128)		
	B	Std. Error	β
상 수	47.4	3.77	
부모의 양육 행동	.35	.11	.26**
R ²			.07
F값(df=1,126)			9.41**

**p<.01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표 4>에서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r=.36, p<.001$)으로 나타났다. 독립(부모의 양육행동)과 종속변인(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

<표 4> 부모의 양육행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 (n=134)
	.36***

***p<.001

<표 5>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n=134)		
	B	Std. Error	β
상 수	52.1	5.02	
부모의 양육 행동	.65	.15	.36**
R ²			.13
F값(df=1,132)			19.22***

**p<.01

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표 5> 참조), 부모의 양육행동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3, \beta=.36, p<.001$).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수록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둘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학교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근거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지를 부분상관관계와 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 통제 시,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r=.58, p<.001$) 한편 <표 7>의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 통제 시, 아동의 학교 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간에 나타났던 유의한 상관관계(<표 2> 참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r=.11, p>.05$).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3, 4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 부모의 양육행동 통제시,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간의 부분상관관계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n=115)
	.58***

***p<.001

<표 7>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 통제 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 적응간의 부분 상관관계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n=115)	
부모의 양육행동	.11(ns)

<연구문제 1, 2, 3>의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효과가 아동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경로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경로 모형 계수는 <표 5>의 결과와 <표 8>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사용하였다(이홍탁,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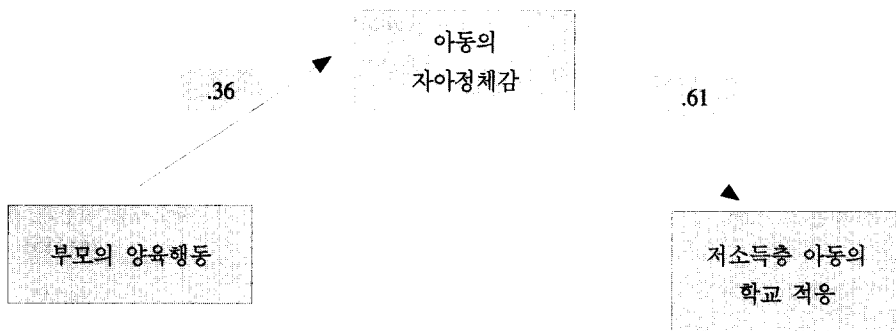
IV. 논의 및 결론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148명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의 매개적 역할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

<표 8>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독립변수	종속변수: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n=118)				
		B	Std. Error	β	R ²	F값
1	상 수	49.93	3.58		.07	8.72**(df=1,116)
	부모의 양육 행동	.32	.11	.26**		
1	상 수	32.55	3.35			70.34*** (df=1,116)
	아동의 자아정체감	.38	.05	.61***	.37	
2	상 수	30.30	3.89			35.91*** (df=2,115)
	부모의 양육 행동	.10	.09	.09(ns)	.38	
	아동의 자아정체감	.36	.05	.59***		

***p<.001



<그림 1>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정체감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 때 높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 사회 또는 행동적 문제 및 학교생활의 중요 설명 변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어주경, 정문자, 1999; 조성연, 1997; Conger 등, 1992; Connell, Spencer, & Aber, 1995)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간의 연구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상의 문제가 마치 부모의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양육행동에 관한 교육 활동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점차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가는 초기 청소년기 진입기(이사라, 박성연, 2001)임을 고려해보면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교육의 효과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충분히 효율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부모의 양육행동의 직접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효과를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수록 높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도현심, 최미경, 1998;

박민선, 박성연, 1999; Archer, 1994; Grotevant & Cooper, 1986; Kroger, 1995)를 지지하고 있다.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에게 아동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실하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결국 아동은 확실한 자기 존재 의미를 바탕으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 등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삶에 대한 걱정과 무력감으로 인해 다른 소득 계층보다 지지적이거나 합리적인 또는 민감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아동의 복종을 강요할 뿐 아니라 아동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신체적 처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희, 1996; 이은주, 이재연, 1996; Sampson & Laub, 1994). 이러한 점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이 부모의 지지적이고 수용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에 의해 상당히 손상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록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행동이 빈곤으로 인한 장기적인 긴장과 갈등 때문에 역기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심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경제적 빈곤이라는 어려움을 부모와 함께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는 만큼 부모로부터 사랑이나 온정과 같은 정서적 지원만이라도 결핍되지 않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아마도 저소득 가정을 위한 공적부조 제공 시,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극적으로 고

려된다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지적이고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좀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의해 매개된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제시한 첫째와 둘째의 결론 및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아정체감이 통제되었을 때 그 유의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교 적응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이 부모의 양육행동 통제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즉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받지만 이는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초기 청소년기 진입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은 부모의 양육행동보다 자아에 대한 인식 즉 자아정체감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아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중요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문은정, 심희옥, 2001; 박은아, 1993; 박현선, 1998; 현희순, 김양순, 1999; Connell et al., 1995)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아동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활동에 주의가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자녀양육행동에 관한 부모교육보다 아동의 내적 인성 특성인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부

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층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도와 상담 그리고 부모교육은 아동복지 사업에서 여전히 주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적응과 관련된 아동복지 정책 기획이나 사업의 효율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 요인인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부모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동 자신의 내적인 특성 즉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동에게 환경에 대해 탄력성을 갖게 하는 자기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의 매개적 역할 측면에서 접근하려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폭넓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는 추후 노력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추후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외에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한다. 불우하거나 위협적인 환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 요인을 아동 내부에서 발견하여 강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 2000)은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여금 취약한 환경에 대해 탄력성(resilience)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년·최정신·권오정(2002). 저소득층의 치매노인 그룹홈 계획에 대한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40(4), 1-12.
- 김양호·박정희·유계숙·전춘애(2002). 모자보호시설 입소모자가정의 가족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시설종사자와 입소 어머니의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99-113.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김영희·김운주·박경옥·이희숙·김창기(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70.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문은정·심희옥(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박경란(1997).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 자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pp. 55-97). 서울 : 하우.
- 박민선·박성연(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2*.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박은아(1993). 가족 구조, 학교 생활 및 가정생활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영혜·김연진(1997). *아동복지*. 서울 : 동문사.
-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1.
- 어주경·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옥경희·김미해·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 이사라·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소희·김영희·윤재정·이용복·최진원·박은희(1999). *현대 영·유아복지론*. 서울 : 양서원.
- 이은주·이재연(1996). 빈곤층 아동의 또래 역량. *아동학회지*, 17(2), 195-206.
- 이홍택(2001). *사회조사 방법론 사회조사와 자료분석 기법*. 서울 : 법문사.
-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존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45-58.
- 현희순·김양순(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제주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12(1), 249-262.
- Adams, G. R., & Fitch, S. A.(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 A Cross-sequential Analysi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574-583.
- Archer, S. L.(1994). *Interventions for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 Sage.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ndt, T. J.(1999). Friends' influence on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In W. A. Collins & B. Laursen(Eds.), *Relationship as developmental context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30(pp.85-107).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nell, P. J., Spencer, B. M., & Aber, L. J.(1995).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 Context, self, actions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493-506.
- Coulton, C. J., Korbin, J. E., Su, M., & Chow, J. (1995). Community level factors and child maltreatment rates. *Child Development*, 66, 1262-1276.
- Dignan,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rikson, E. 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Y : Norton.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77-290.
- Garnezy, N.(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9), 459-466.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 :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taking skills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Kroger, J.(1995). The differentiation of 'firm' and 'developmental' foreclosure identity statuses : A longitudinal study. *J. of Adolescent Research*, 10, 317-337.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 P. Vincent(Eds.)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ment, and theory* (Vol. 2, pp.131-182). Greenwich, CT : JAI.
- McLoyd, V. C.(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31-346.
- McLoyd, V. C., & Wilson, L.(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105-135). NY : Cambridge Univ. Press.
- Rutter, M.(1979). *Changing youth in a changing society*. London : Nuffield Provincial Hospital Trust.
- Sampson, R. J., & Laub, J. H.(1994).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 Relevance of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Child Development*, 65, 283-295.
- Vandell, D. L., & Ramanan, J.(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 Choices in after-school 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37-643.